

최대 주행거리 524km...현대 '아이오닉 6' 사전계약 개시

전기차 보조금 혜택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현대차 최초 적용 기능 대거 탑재 우수 상품 확보
전국 고객 찾아가는 순회전시 9월 중순까지 실시



페타이어 재활용 도료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도료로 입힌 내외장 도색, 친환경 공정으로 가공된 가죽과 재활용 플라스틱 원단을 사용한 시트,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플라스틱 스킨을 입힌 대시보드, 바이오 PET 원단으로 제작된 헤드라이너, 페어링 재활용 원사로 제작한 카페트 등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곳곳에 녹여냈다.

또한 세련된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3가지 핵심 색상을 비롯해 9종의 외장색상과 4종의 내장색상으로 운영한다.

현대차는 9월 중순까지 다양한 거점을 순회하며 전국 각지의 고객들을 찾아가 아이오닉 6의 뛰어난 상품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6는 유선형의 스트림라인 실루엣을 기반으로 달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와 현대차 최초로 탑재되는 다양한 기능을 앞세워 전동화 시대의 한 차원 높은 이동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전국 고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아이오닉 6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울러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수회기자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6(사진)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22일부터 전국 현대자동차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달 '2022 부산 국제모터쇼' 현장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아이오닉 6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라인업이자, 기존 SUV 위주였던 전기차의 틀을 깨는 스트림라이너 유형의 모델이다.

아이오닉 6는 ▲6.2km/kWh의 세계 최고 수준 전기소비효율 ▲산입부 인증 기준 524km에 달하는 넉넉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현대차 역대 모델 중 최저 공기저항계수 0.21 ▲매끈한 유선형 외장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으로 최적화된 안락한 실내공간 ▲차와 사람이 교감하는 다채로운 라이팅 기술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최첨단 안전 편의사양 등을 기반

으로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할 모델로 평가된다.

아이오닉 6는 53.0kWh 배터리가 장착된 스탠다드(기본형)와 77.4kWh 배터리가 탑재된 롱레인지(향속형) 두 가지 모델로 판매되며, 롱레인지는 74kW 전륜모터가 추가된 HTRAC(사륜구동)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HTRAC을 선택하면 최대 239km 출력과 605Nm 토크를 기반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단 5.1초만에 주파하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합리적인 가격 구성을 통해 구매 고객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후 기준으로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천200만원, 롱레인지 모델 ▲익스클루시브 5천605만원 ▲익스클루시브+(플러스) 5

천845만원 ▲프레스티지 6천135만원 ▲E-LITE 2WD 5천260만원이다. (※개발소비세 3.5% 기준)

현대차는 아이오닉 6에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되는 EV 성능 튜입 기술과 현대차 최첨단 주요 전자제어장치까지 범위를 확대한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해 실내 V2L, 전방 충돌방

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배터리 히팅 시스템, 히트펌프 시스템 등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우수한 상품성을 확보했다.

이외 ▲듀얼 컬러 엠비언트 무드램프(속도 연동 기능 포함)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e-ASD)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지능형 헤드램프(IFS) ▲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 등 현대차 최초로 탑재되는 기능들과 함께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 및 일체형 대시보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20인치 휠 & 피렐리 타이어 ▲와이드 선루프 등을 선택사양으로 운영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에 수명이 다한

현대차 아이오닉 5 '올해의 전기차' 등극

미국 자동차전문지 선정 발표
차량 가치·주행 성능 등 호평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사진)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가 발표한 '2022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는 '전기차의 새로운 지평선(The new horizon of EV)'이라는 문장 메시지처럼 전기차의 지평을 열고 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전기차 시대를 대표하는 모델로서 인정을 받았다.

카앤드라이버는 아이오닉 5를 포함해 아우디 e-트론 GT, BMW i4 및 iX, 웨보레 볼트 EV, 포드 머스탱 마하-E GT, 메르세데스-벤츠 EQS 등 20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3주간의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중 아이오닉 5는 19개 경쟁 차량을 제치고 최고의 전기차로 뽑혔다.

평가는 카앤드라이버 에디터들을 통해 ▲차량 가치 ▲주행 테스트 ▲차량에 적용된 신기술 ▲주행의 즐거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니 퀴로가(Tony Quiroga) 카앤드

라이버 편집장은 "아이오닉 5는 주행 성능, 항속거리, 충전속도 등 차량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보여줬다"며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호세 무뇨즈(Jose Munoz)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 역분부장(사장)은 "넓은 실내 공간과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 5를 성공적으로 출시했다"며 "아이오닉 5에 이어 앞으로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 출

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오닉 5는 높은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와 고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한 데 이어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으며, '아우토 빌트(Auto Bild) 최고 수입차(Best Import Cars of the Year) 전기차 부문 1위',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 전기차 비교평가 종합 1위' 등을 차지한 바 있다. /기수회기자

맞춤형 모델 기아 '씨드', 유럽서 가장 잘 나간다

1-7월 9만여대 팔려...현대차그룹 차종 중 판매 1위

기아의 유럽 맞춤형 전차 차종인 '씨드'(Ceed)가 현지에서 10여년 만에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2일 현대차와 기아의 IR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현대차그룹의 유럽 판매 차종 가운데 판매량이 가장 많은 차는 씨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9만1200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7만4천683대)보다 20.7% 늘었다. 씨드 다음으로는 기아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8만5천253대), 현대차 투싼(7만4천111대)이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씨드는 실용성을 중시해 해치백이나 왜건 선호도가 높은 유럽 소비자의 특성에 맞춘 전략 차종이다.

2006년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해 현재까지 3세대 모델이 출시됐다.

코트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스웨덴 자동차 시장에서 씨드는 2천91대가 팔려 전체 판매량 5위에 올랐다. 스웨덴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지원금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 연간 판매량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씨드는 다시 전성기를 맞을 모습이다.

씨드는 첫 출시 1년 만인 2007년 유럽에서 가장 많은 7만1천952대가 팔렸고, 이듬해에는 11만2천373대로 1위를 지켰다. 하지만 이후 i10과 i30, 스포티지, 투싼, 코나 등에 밀리다가 올해 다시 유럽 연한 베스트셀링카 후보에 올랐다.

씨드의 유럽 판매량은 지금 추세라면 연간 15만대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13만4천908대)을 뛰어넘는 것으로, 14년 만에 최고 판매 차종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현대차, 美전기차 전용공장 조기 설립 추진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의 착공 시점을 올해 안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기 착공이 실현되면 공장 완공 및 양산 시점은 2025년 상반기보다 6개월 빠른 2024년 하반기가 된다.

현대차가 이처럼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된 이 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오닉 5나 EV6 등 현대차 그룹이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되고 있어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데 금액이 1천만원 정도다.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가격이 1천만원씩 정도 비싸져서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제사나라 www.jesana.com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